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의도

-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는 지난 4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언어와 매체>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체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례와 제시문은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 제시문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이해와 사회와 교과에서 학습한 국토 경제 개발, 인구의 증가, 분배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오늘날의 사회 현상과 연계하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구의 성별, 연령구조별 구조를 통해 국토개발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국토 개발 계획과 인프라의 분배 등을 위해 인구자료는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인구구조를 통해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저출산, 경제적 불안 구조 등의 상관성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구구조와 분배는 지표상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구를 흡인하는 데에는 기능과 집결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능과 집결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구를 배출하는 지역들은 이에 상대적인 원인을 지니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로 이루어진 서울 대도시권은 한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거대한 구심력을 지닌 일극 집중지역이 되었고, 이에 반해 서울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제 사회 기반이 낮을수록 큰 규모의 인구를 배출해왔다. 이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국토의 균형을 깨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50여년의 한국 국토개발은 서울 대도시권의 집중 방지와 지역 분배에 초점을 둔 계획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도시권은 도시 기반과 다양한 서비스, 인구 규모에 준한 인프라의 개발과 예산 편성 등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등이 더욱 확대되어왔다. 인구의 변화와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기반 시설의 약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비도시 지역이 지방소멸이라는 위협적 심각성이 대두되는 한국의 불균형적 국토 상황의 문제점을 지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방소멸이 의미하는 바를 지문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인구가동, 분배, 출산력의 저감과 고령화의 인구구조 및 변화가 국토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시된 그래프와 지도를 읽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또한 재난 등 지역 환경의 악화와 쇠락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기부금 제도를 이미 실시한 일본을 사례로, 한국도 '고향세'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려 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고향세'는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인구의 불균형적 변화에 따라 비도시 지역의 쇠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세'는 자금 조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고향세의 제도적 의미가 기부자를 모집하여 지역의 재생에 탄력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실행되기 시작한 한국의 고향세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교육, 문화, 다양한 혜택 등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대도시를 향해 떠나간 기동성있는 청장년층 인구가 '고향세 제도'를 기회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부금을 통해 표현 할 수 있을까? 아직 지자체별 명확한 기부금 활용 계획을 구성하지 못한 채, 지자체 사업 예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답례품은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매년 꾸준히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적립해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향세 기금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기존 도시적 상업 환경을 흉내내는데 사용한다면, 새롭게 조성된 외부 상업시설물 건축에 따라 토지와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의 소규모 혹은 영세형 고유 상점과 노포 등이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등에 대한 사고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파리와 독일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제시문의 출처 및 관련 교과서

- 제시문 <가>

출처:

- 구양미(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301-320.
- 김현호(2022), 지방소멸 방지의 해법 모색, 기획특집: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상생센터.
- 임석희(2018),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2(1), 65-84.
- 장문현(202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7(1), 11-22.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organizationFunction.do>

관련 교과서:

- 최병천 외 (2018), 『세계지리』(pp. 174-179), 비상출판.
- 유성종 외 (2018), 『한국지리』(pp. 104-111), 비상출판.
- 박병기 외 (2018), 『통합사회』(pp. 88-97), 비상출판.
- 구정화 외 (2018), 『통합사회』(pp. 92-102), 천재.

- 제시문 <나>

출처:

- 박재호(2022),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희망제작소 팀장 발표자료(2022.11)
- 유한별 외(2021),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4(4), 443-47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관련 교과서:

- 최병천 외 (2018), 『세계지리』(pp. 174-179), 비상출판.
 - 유성종 외 (2018), 『한국지리』(pp. 104-111), 비상출판.
 - 박병기 외 (2018), 『통합사회』(pp. 88-97), 비상출판.
 - 구정화 외 (2018), 『통합사회』(pp. 92-102), 천재.
- 제시문 <다>

출처:

- 박태원(2016), 도시재생의 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과 정책적 과제, 입법과 정책 13호, 90-110.
- 젠트리피케이션 어찌할까, 서울경제, 2018.07.01.
- 세상에 '좋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없다, 프레시안, 2017.12.23.

관련 교과서:

- 최병천 외 (2018), 『세계지리』(pp. 174-179), 비상출판.
- 유성종 외 (2018), 『한국지리』(pp. 104-111), 비상출판.
- 박병기 외 (2018), 『통합사회』(pp. 88-97), 비상출판.
- 구정화 외 (2018), 『통합사회』(pp. 92-102), 천재.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극명하게 인구의 서울 일극 집중을 경험하였다. 전쟁 이후 국토 재건과 경제적 환경의 복구를 위해 서울을 일극으로 집중 개발을 하고, 이후 파급효과를 통해 국토를 개발해보자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적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서울은 흡인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은 배출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십여 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국토개발정책을 통해 서울 대도시권 억제정책, 분산정책 등으로 국토 균형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서울대도시권과 이외 지역으로 인구가 50:50으로 이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결국 서울은 1988년 서울의 교외지역 다섯 곳을 선정하여 주택 신도시를 구축하며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 이후 성남의 분당과 안양 등은 100만 도시로 거대화 되는 등 오히려 인구 집중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인구의 서울 집중화에 따른 밀집과 주택 문제의 증가, 이와 함께 산업과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대부분 정책과 예산이 서울에 편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국토 균형 개발에 매우 지대한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발과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세종시의 빨대 효과라는 또 다른 문제를 생성시켰다. 이렇듯 대도시의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질 높은 인프라 구축은 지방의 인구를 흡인하고, 기반이 취약하고 대도시에 비해 교육 등 서비스의 환경이 낮은 지역의 인구는 넓은 기회를 찾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인구의 고른 배분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이 처해있는 불안정한 휴전 상황에서, 국토의 1/11 규모를 지닌 서울 대도시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순이동 추이에서 꾸준히 부(-)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호남권이고, 199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대신 경기도의 순이동 정(+)적 성장이 눈에 띄는 것은 신도시 개발 이후 서울의

인구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두 지도를 비교하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저감지역과 절대 감소지역이 뚜렷히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지역의 특별한 기능이 강화되거나 신산업이 유치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없는 감소되는 인구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인구 불균형에 대해 지문을 기초로 그래프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를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에서 시도하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일본은 재난상황에서의 위급함과 복구를 위한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애항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고향세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인구 이동 특성과 더 나은 도시에 대한 동경 등의 특유한 정서가,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떠나온 고향에 선뜻 기부하는 환경으로 이어질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서울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다 큰 기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교육환경에서도 우수한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 전형이라는 입시제도를 통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 서울권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환경에서 서울 집중성의 분산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들어와서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신도시 개발과 신산업 유치, 그리고 교통로 확대 등으로 서울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서울의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를 통해 서울이 성장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우려하고 있는 소멸 위기에 처한 심각한 인구 감소지역과 1975년 이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뚜렷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에서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 특히 그동안 산업 개발과 경제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세'를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쉽지 않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 고향에 대한 관심과, 내 고향에 대한 자긍심 등의 애항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 유치 혹은 정책적 판단으로 기능의 배치에 따른 인구 이입의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없다. 정부의 지원 또한 인구규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이를 기대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지방의 소멸 현상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지역 세제 규모가 줄어들어 따라 지역의 인프라와 각종 사회 경제적 환경이 낙후되는 것은, 남아있는 부양 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열악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의 국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전국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도시적 상업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할지 모른다. 결국 지역 고유의 상점이나 노포, 오랜 기간 잔여해있는 지역 상권은 정체 없는 외부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 정체성까지 날려버릴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지역 경쟁력의 화두는 지역 매력도이고, 이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기반이 지역의 정체성이다.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의 장소감과 매력도를 상승시키면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굳이 도시적 상업 시설물이 없어도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세 기부금을 모금하기 전에 지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창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문과 신문기사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인 젠트리(gentry)가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거주지에 파고 들어가 공간을 변화시키는, 즉 '젠트리파이(gentrify)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영국의 도시학자인 루스 클래스가 1960년대 런던의 쇠락한 도심 주거지가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상권이 발전하고 중산층이 쇠퇴지역에 진입하여 전체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가져오는 이러한 현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급격하게, 특히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없이 이뤄질 때는 대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래스가 관찰하던 때와 다르게 최근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의 의도적인 흐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먼저 쇠퇴한 거리에 자본이 흘러들어 이를 변화시키고 적당히 꾸민다. 곧바로 이곳은 매력적인 곳으로 환골탈태하면서 멋진 곳으로 소문이 난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제 원주민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쫓겨난다. 원주민들이 쫓겨나도 임대료는 계속 올라간다. 매력 있고 아기자기한 거리에 거대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고 커다란 가게를 꾸민다. 결국, 거리의 매력은 사라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든다.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자본은 빠져나가고 거리는 다시 쇠퇴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주민시설을 상업지역으로 바꾼 탓에 지역주민들의 정주성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해외의 여러 도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 해설

- 【문제 1】은 ‘지방소멸’의 용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적용이 한국의 지속적인 국토 균형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술하는 것이다. 논술을 위해 ‘지방소멸’이 의미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지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분포가 국토개발 정책에 따라 불균형을 이루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대도시와 중핵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도시 지역은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지역이 쇠락하고 지역 간 편차가 악화되고 있다는 국토 현실을 인지한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은 인구의 왜곡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사회기반이 약한 지역은 교육, 행정, 정책 등의 서비스의 사각 시대에 놓여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토개발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역기반이 낙후된 비도시지역의 활성화를 탄력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지문의 여러 설명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고향세’ 제도 등을 도입하며 지방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가 지닌 한계에 의해 기금의 활용과 납세자 풀의 규모,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행 가능하고 유익한 제도로 효용성있는 기금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구축 이전에 지역성의 강화와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 정체성의 확고한 보전 방안, 지방의 매력도를 상생시킬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노력, 그리고 자치 시민들의 참여와 보호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 【문제 2】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파리와 독일의 사례에 대한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서술하고, 그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 형성 초기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도심에 위치하지만, 이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기존 도심 주거지에 확대되면서 도심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확대되고 자동차를 보유한 중산층은 교외로 주거지를 이동한다. 중산층이 떠난 주거지역은 하위 계층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노후화되고 이러한 노후화된 공간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복합 개발이 되는데, 이곳에 다시 중산층이 유입된다. 이렇게 도시가 재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중산층과 부유층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늘어나 지역의 갱신효과와 재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재정이 증대될 수 있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 임대 비용 부담이 높아져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기 때문에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기준표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	▶ ‘지방소멸’ 용어의 의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용성 등 용어와 사회 환경 및 지문이 제시하고 있는 용어와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는가?
	20	▶ 제시문 ‘지방소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특성이 국토 불균형과 불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 지문 내용을 활용하여 잘 파악하고, 그래프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설명력을 높였는가?
	20	▶ 한국의 고향세가 지닌 제도적 한계를 파악하고, 일본의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였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이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발현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도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였는가? ▶ 고향세 기금 활용 시 도시적 상업모형을 흉내내며 지역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가?
	5	▶ 문장의 적절한 구성과 어법으로 논리적 서술이 이루어졌는가?
문제2	5	▶ 제시문 <다>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의 ㉡현상의 발생 원인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논술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논술했는가?

문제 1 예시답안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5-2020년 간의 인구 성장은 서울과 몇몇 도시에 집중되었고, 행안부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지역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능과 경제적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인구를 흡인하는 대신, 지역 기반이 약한 곳의 젊은 인구를 비롯한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간다.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20세기 후반까지 서울 순이동인구가 가장 높게 증가했는데,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신산업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회와 나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도시를 향해 이출된 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방은 공동화되고, 지역소멸이라는 위협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지역이 소멸되는 일은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고있는 곳에 필요한 시설물, 교육, 행정, 인프라 환경들이 분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될 수 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삶의 질이 낙후되는 지자체들이 활성화 전략 지원을 요구하였고, 일본이 실행하고 있는 ‘고향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재난 대응의 위급 상황에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시혜적 마음으로 기부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고향세 기부 기회가 바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의한 기부금 납부를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마 고향의 추억이 애뜻하고 자랑스러움이 있는 사람은 기부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모른다. 지역의 특수한 매력과 근린, 도시, 환경적 어메니티가 충분하다면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의 요소가 될 것이다. 지방의 주민이 주체가 된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노포 등의 보전에 고향세가 활용된다면 연대감 형성과 협력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 계획 없이 도시형 상업모형을 흉내내는데 기금이 활용된다면, 임대료의 상승이나 지역성의 파괴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 2 예시답안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 형성 초기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도심에 위치하지만, 이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기존 도심 주거지에 확대되면서 도심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확대되고 자동차를 보유한 중산층은 교외로 주거지를 이동한다. 중산층이 떠난 주거지역은 하위 계층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노후화되고 이러한 노후화된 공간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복합 개발이 되는데, 이곳에 다시 중산층이 유입된다. 이렇게 도시가 재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중산층과 부유층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늘어나 지역의 갱신효과와 재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재정이 증대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 임대 비용 부담이 높아져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들기 때문에 지역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